



안면신경마비의 진단과 치료

글 · 박승하(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장)

안면신경의 역할

안면신경은 주로 안면의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뇌에서부터 측두골인 귀 뒤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안면으로 나와서 다섯가닥으로 나누어지며, 안면 양쪽의 안면근육을 지배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울고 웃는 등 수많은 감정을 다양하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는데 그 표정은 안면 근육에 의해 표현된다.

안면 근육은 17쌍으로 이루어졌으며,

얼굴에서는 음식을 씹는 저작근과 눈꺼풀을 뜨게하는 거상근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근육이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아 움직인다.

따라서 안면신경은 얼굴의 모든 표정을 나타내며, 눈을 감게 하여 눈을 보호하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입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안면신경의 작용은 눈물과 침샘을 분비하게 하며 혀의 미각과 청각에도 일부 작용하는 중요한 신경이다.

안면신경마비의 증상

안면신경이 마비되면 안면근육이 작용을 할 수 없어 얼굴의 표정이 없어지게 된다. 가장 뚜렷한 증상은 입이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입이 처지고 움직이지 않으며, 뺨과 입 사이의 끈이 없어진다. 이런 증상은 말을 하거나 웃을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또 입술을 꼭 다물 수도 휘파람을 불 수 없고, 음식을 씹을 때 마비된 쪽에 음식이 고여 씹기 불편하며 침이 고이거나 밖으로 흐르기도 한다.

이마의 주름이 없어지고 눈썹을 위로 올리지 못하여 앞을 보기가 불편하며 중년 이후에는 눈썹과 눈꺼풀이 더욱 처지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진다. 또한 안면신경의 중요한 작용인 눈을 완전히 감을 수가 없게 되어 눈을 뜨고 자며, 심한 경우 아래 눈꺼풀이 처지거나 뒤집혀 보이기도 한다.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눈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듯한 느낌과 충혈이 있으며, 진행되면 각결막염, 백내장,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시 눈물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눈물이 분비되어도 겉으로 흐르는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혀의 앞쪽 미각이 없어지고, 청각이 감소하기도 하며 보통 소리가 큰

소리처럼 들려 놀라는 경우도 있다. 안면신경마비로 표정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안면신경이 회복되어도 정상적인 근육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근육 경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 환자들은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얼굴의 모양때문에도 대인관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진단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다. 날 때부터 마비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선천적인 경우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아기가 울 때 입이 심하게 돌아가며 사시나 다른 신경마비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성인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벨 마비(Bell's palsy)로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안면 표정이 없어지게 된다.

찬 곳에 엎드려 자거나 찬 바람을 많이 쐬 경우,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감기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 안면신경이 부어오르거나 눌러서 마비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벨 마비인 경우 6개월 이내에 95% 이상에서 완전히 회복된다. 이외에도 안면신경이 시작되는 뇌 안의 문제로 뇌졸중, 뇌종양, 뇌의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안면신경의 경로인 귀의 바로 뒤 측두골 부위에 종양, 중이염의 후유증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있을 때도 마비가 나타난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얼굴에 손상이 있는 경우 안면신경이 절단되거나 안면골 골절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하겠다.

안면신경마비는 얼굴만 보아도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안면신경마비의 증상과 형태, 그리고 동반된 증상을 참조하여 원인을 추측하며, 신경학적 검사, 뇌와 귀 주위의 컴퓨터 촬영, 근전도 검사 등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요한다. 안면신경이 마비된 상태나 예후를 알기 위해서는 안면신경의 근전도 검사가 가장 유용하다. 벨 마비인 경우 대부분 6개월 이내 회복되지만 그 후에도 전혀 회복이 안되는 경우나 특히 두통이 심한 사람, 청력이 소실된 사람, 다른 마비 증상이 있거나 반복되는 안면신경마비가 있는 환자는 필히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안면신경마비의 치료

안면신경마비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며, 안면신경 마비의 시기에 따라 급성기에는 약물치료나 근전기 자극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완전한 안면신경마비시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된다. 안면근육은 안

면신경의 자극을 받아 수축하기 때문에 안면신경마비가 6개월 이상 지나면 안면근육도 변성되어 근육이 수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안면신경의 재생을 돕기 위하여 안면에 근전기 자극 치료를 급성기에 시행한다.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수술방법은 마비 증상에 따라 달리 시행하며 과거부터 수십 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수술로 안면신경을 원상태로 완전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술도 마비 증상에 따라 시행하며 주로 눈과 입 주위의 불편함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흔히 하는 수술로는 눈을 감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윗 눈꺼풀에 금 조각을 삽입하여 그 무게로 윗 눈꺼풀이 내려오게 하거나 느슨한 아래 눈꺼풀을 팽팽하게 고정시키고 측두근을 돌려주어 눈을 감기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눈썹과 눈꺼풀이 처져서 앞을 보기 답답한 경우에 이마나 머리 속을 찌고 눈썹을 올려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이밖에 입 모양의 대칭을 이루기 위하여 근육이나 신경의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 늘어진 부위를 당겨주기 위한 근막전인 봉합술, 혀로 가는 신경을 사용하는 신경교차술, 저작근 전이술 등 많은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여도 어금니를 물거나 혀를 내미는

안면신경마비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 찬 바람을 쐬면 입이 돌아간다.

안면신경마비는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신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안면신경은 두개골에서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안면으로 나오는데, 감기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경이 부어오르고 혈액순환이 안되어 마비가 발생한다. 찬 돌을 베고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귀 뒤의 안면신경이 지나는 부위가 찬 기운으로 수축되어 신경이 압박되거나 혈액순환이 안되어 마비가 나타나는 것이다. 찬바람을 쐬면 반드시 마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쇠약할 때 감기같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기 때문이다.

▶ 안면신경마비는 기다리면 돌아온다.

안면신경마비는 대부분 회복되니까 검사할 필요 없이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안면신경마비의 가장 많은 경우는 벨 마비로 잠을 자고 나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아지지 않는 경우다. 벨 마비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하면 90%이상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뇌종양, 만성중이염, 이하선(침샘)종양, 외상 등 안면신경마비를 초래하는 많은 원인이 있다. 벨 마비가 아닌 경우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기다리다 보면 더 중한 질환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수가 있다. 안면신경마비에서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원인을 밝히고,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면 마비가 언제 어느 정도 회복될지 병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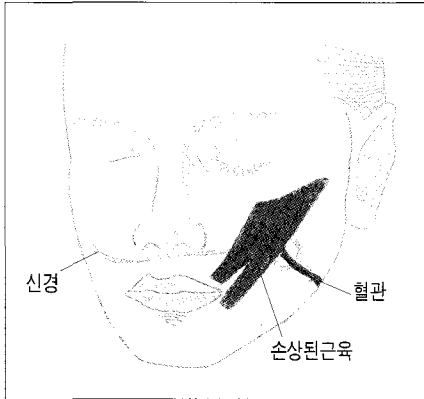
▶ 안면신경마비는 침을 맞으면 회복된다.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무조건 침을 맞으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다고 알고 있다. 안면신경마비 환자 중에는 마비 때문에 침을 몇 년 이상 맞아온 환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침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는 벨 마비인 경우이며, 벨 마비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회복된다. 안면신경마비의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전기신경자극 같은 물리치료를 하는데 만성기에는 별 효과가 없으며, 침의 효과도 초기에 물리치료 정도이며, 만성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침의 효과를 과대하게 기대해선 안 된다.

▶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은 성형수술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가 6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안면의 표정은 안면신경과 안면근육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안면신경이 마비되면 자동적으로 안면 표정근육도 변성이 오게 된다. 안면근육은 신경자극이 없으면 근육의 변성이 오기 때문에 마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표정근육이 변성되어 신경이 재생되어도 정상기능을 할 수 없다.

안면신경마비가 심한 후유증을 남긴 경우 신경이식, 근육이식 등의 성형수술을 하여도 정상적인 표정을 얻을 수는 없다. 요즘 시행하는 미세성형수술은 증상이 심한 입과 눈 주위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과거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안면근육은 17쌍이 복잡한 표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술로 정상과 똑같은 표정을 만들 수는 없다



등의 부자연스런 동작을 해야만 웃는 모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즘은 복잡하지만 신경이식술과 근육전이술을 사용한다.

신경이식술과 근육전이술

안면신경의 완전마비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하는 한 방법으로 수술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수술은 종아리에서 감각신경 일부를 떼어내어 정상측 안면신경 분지의 한 끝에 신경 봉합술로 이어주고, 다른 한 끝은 마비된 측의 귀 앞으로 이어둔다.

이식된 신경을 따라 신경 재생이 이루어지는 약 1년 후에 2차 수술로 허벅지에서 근육 일부를 절제하여 마비된 쪽에 옮겨주고 신경과 혈관을 현미경하에 미세봉합술을 시행한다. 2차 수술 직후 빠뜨려진 입은 평상시 제 위치로

교정되며, 2차 수술 후 6개월~1년 후에 정상인 쪽과 동시에 입이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나게 된다. 이런 대표적 수술 외에도 눈을 감기게 하거나 처진 눈썹을 올려주는 등 다른 수술 방법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술의 성공률과 한계성

마비된 모든 안면근육을 수술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빼놓아진 입을 정상 위치에 맞추어 주고 신경재생이 잘 된 경우 웃을 때 양측이 동시에 움직이게 하며, 감기지 않는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여 눈을 보호하며, 처진 이마나 눈썹을 올려주는 정도의 수술이 가능하다.

신경재건수술의 어려움은 전기는 전기줄만 이어주면 금방 전기가 통하지만 신경은 신경봉합이나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된 신경을 따라 서서히 신경이 재생되는데 하루 1mm 이하로 자라 들어가므로 신경을 이어준다고 즉시 신경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개인적인 차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

박승하 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